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내일(25일) 정부에서 Lockdown에 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환원되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t. David 교회의 Interim Moderator (임시 노회장)가 Glynn Cardy 목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예배 처소와 기타 여러 제반 현안들이 잘 협의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3. 어려움에 직면한 주변 이웃들이나 실의에 빠진 자들이 용기와 힘을 얻도록 격려와 기도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5월 교회사역일지

5월 3일(주일)
자녀주일
5월 10일(주일)
부모주일
5월 31일(주일)
권사 기도회,
유아 세례식

5/6월 기도순서

5월 31일 (주일)
박덕철 장로
6월 3일 (수)
박제란 권사
6월 7일 (주일)
박병민 장로
6월 10일 (수)
박후임 권사

5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1호

2020.05.24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주 일 예 배

1부 오후 1시
(온라인 예배)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찬 송	-----	다함께
✧신앙고백	-----	다함께
찬 송	-----	다함께
대 표 기 도	-----	김병진 목사
성 경 봉 독	-----	인도자
설 교	-----	이태한 목사
찬 송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	문일숙 집사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2:13-21
설 교	-----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
	-----	이태한 목사
찬 송	-----	488장
주 기 도	-----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바누아투 정성욱 선교사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초에 바누아투에 5등급 초강력 태풍(헤럴드)이 몰아쳐서 말로섬, 산토섬, 펜타코스트 섬, 암브림섬 등 여러 섬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200km 떨어져 있었던 저희 집 지붕의 강철로 된 인터넷 안테나의 지지대가 끊어질 정도로 비바람이 심했습니다. 말로섬의 경우 망고 나무가 집을 덮쳐서 집안에서 40대 여자가 죽었고 미처 피하지 못한 노인 한 분도 집안에서 변을 당하였습니다. 가옥의 80% 이상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교회와 학교들이 무너졌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사람이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포트빌라의 교회들이 모여 3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식량을 국가재난지원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모여져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말로 섬과 산토 섬을 방문하여 1차로 120여 가정에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였고 피해 복구를 위한 손수레와 톱, 잔디 깎기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져 길이 막혀 힘든 상황이라 전동 톱과 삼 등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물품이 모자라 구매가 되어지는 대로 5월 안에 추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복구하는데 1년은 더 걸리리라 보여 집니다. 탈루아 신학교도 56개 건물 중 46개가 피해를 입어 학사 일정도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바누아투의 비상상황은 한 달 더 연장되었지만 부활절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모임이 허락 됨에 따라 20개의 빌라지역의 교회들이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 미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사진은 재난 지역을 돕던 중 한 분이 현지인 할머니가 어려움 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며 두 번째 사진은 태풍으로 부서진 교회, 셋째는 산토섬 방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원천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더욱 그분과 친밀해지시길 바누아투에서 기도드립니다. 정성욱 김금숙 올림

기도 제목

- 성경통독과 기도모임 가운데 힘을 얻고 바누아투 교회를 잘 섬기도록
- 탈루아 신학교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복구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 여러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St. David 교회의 임시 노회장 Glynn Cardy 목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 하사 현안들이 잘 해결되도록.
2.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3. 새로운 결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영적 회복을 다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나눔란

2020년 5월 17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노아 처럼> 창세기 6:9-22

노아 시대 사람들은 부패하고 포악했으며(6:11-12) 이를 세밀하게 보신 하나님은(6:11-13) 통탄하시며 인간의 멸망이 아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노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는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6:9):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업적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6:8).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로 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 살았습니다(벧후2:5).

2)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6:9):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칭찬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롬 12:2). 노아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완전한 자로 살았기에 우리도 노아처럼 살며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습니다.

3)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6:9):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꿈과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4)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6:22): 노아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바다가 아닌 산에서 방주를 만들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히 11:7).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홍수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함 없이 완전하게 순종한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야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와 같은 말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물 위에 떠있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방주의 창을 위에 낸 이유는(6:16) 옆을 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골 3:1) 방주의 출입문이 하나인 것은(6:16)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요 14:6). 방주는 아무런 동력도 없기에 방주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 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께 맡기면 머지않아 소망의 포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 묵상: 디모데후서 2장 - 요한3서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7: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